



초기 문해력 쓰기 부진 일반 아동의 따라 쓰기 활동 분석*

한정혜¹, 김현숙²

《 요 약 》

초기 문해력 시기에는 쓰기 지도를 하기 위해서 받아쓰기와 같은 시험을 통하여 교사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한 철자 위주의 지도를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장교사가 일반 아동의 초기 문해력 쓰기 지도를 위해서 손글씨 쓰기 과정 관찰, 손글씨 모양을 통하여 쓰기 부진 원인을 쉽게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관찰 평가 기준에 의하여 쓰기 우수, 보통, 부진 집단으로 구분한 후, 제시된 테스트 어휘에 대하여 보고 따라쓰기를 하여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고 손글씨를 수집하였다. 사전 평가집단별 초기 문해력 쓰기 활동의 관찰 항목으로는 연필 잡는 자세, 쓰는 자세, 자형, 글자 크기, 필순, 철자법, 속도와 같은 항목들이 고려되었다. 이를 토대로 초기 문해력 쓰기 학습 부진 학생들의 주된 특징과 문제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쓰기 부진을 막기 위해 지도해야 하는 우선 고려항목으로 연필 잡는 자세와 필순을 도출했다. 또한 쓰기 부진 학생들은 자형, 글자 크기, 철자법, 속도에서도 낮은 성취도를 보여, 자형과 크기 등의 병행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집된 손글씨 이미지의 자형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쓰기 부진 학생의 경우 이중모음이 자음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되는 자음 〇이 불규칙한 것을 관찰하였다. 초기 문해력 쓰기 지도를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학생들과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 및 제안하였다.

주제어 : 초기 문해력, 받아 쓰기, 쓰기 부진, 따라 쓰기, 손글씨

1.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hanjh@cje.ac.kr(주저자)
2. 가평초등학교 교사, puri625@korea.kr(공동저자)

I. 서론

학습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은 언어이며, 문자 언어의 해독은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학습에 필수적이다. 문자는 음성을 기록하는 것으로 기호와 의미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추상적인 사고와 문자 언어의 학습이 필요하다. Stanovich, K.E. (1986), 이경남(2021)은 학습자 일생에 있어 교과 학업 성취도와 자아상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글자를 습득하고 읽고 쓰고 내용을 파악하는 기초적 국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영택 외 4인(2023)은 초기 문해력 개별화 교육 연구에서 연구와 실천을 연결하는 교사 연구자로서의 읽기 따라잡기 교사의 역할과 연구 기반의 균형적 문해력 접근법을 논하였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 활용할 수 있는 쓰기 학습 부진을 중점으로 진단하는 평가 도구는 없고 표준화 검사지도 없는 실정이다(강동훈, 2023). 다만, 학습결손 조기 발견 및 적기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지속력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에서 국어는 기본 교과이며 초등학교 1학년은 9월부터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기초학력 진단은 웹 기반 플랫폼으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기초 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지역 교육청의 플랫폼(예: 충청북도교육청의 다채움)을 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는 정보기기 활용 능력의 부족으로 웹기반 진단 플랫폼의 평가지를 출력하여 실시하는 지필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웹기반 진단이나 지필식 모든 경우 객관식 선택 문항에 따른 읽기 능력의 측정에 가깝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따라서 기초학력 진단 평가와 별도로 지필식 철자 쓰기에 대한 평가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의 학습 활동을 관찰하거나 받아쓰기를 통한 철자 정확도를 측정하고 지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Skar, G. B. (2021)는 글쓰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필기 숙련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글쓰기 수행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7.4%의 변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가는 이후 문해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문해력에서의 쓰기 활동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 대상 쓰기 연구는 학생들이 쓴 글을 분석하여 쓰기 능력의 발달을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하여 쓰기에 대한 인식, 쓰기 선호도, 쓰기 실행, 쓰기 효능감 등의 쓰기 태도를 살펴보고 있다. 초기 문해력 단계의 손글씨 유창성, 쓰기 태도, 쓰기 준비도, 쓰기 수행도에 대한 연구는 한송이와 정경희(2018), 김희은과 김동일(2021)과 같이 주로 특수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일반 학생의 경우 정민선, 신나민(2014)의 중학생의 필기에 대한 인식, 실태 및 필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장동민(2021)의 초등 2~3학년의 손글씨에 대한 양적 분석 연구, 최근 김현숙과 한정혜(2023)의 초기 문해력 손글씨 데이터를 활용하여 쓰기 부진을 엔트리 기반 인공지능 모델로 판별하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도 있으나, 일반 아동의 초기 문해력 쓰기 활동에 대한 태도, 준비도, 수행도에서 다소 부진한 아동에 대한 지도법 등에 관련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글 해득이 막 시작되는 초기 문해력 단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쓰기 활동에 대한 관찰 분석, 손글씨 결과물 분석, 학습자와 교사 인터뷰를 통하여, 초기 문해력 지도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쓰기 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초기 문해력 쓰기 발달

초기 문해력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문해력을 의미하며, 읽기와 쓰기로 구성한다. 이 중에서 쓰기 발달은 시각과 운동 통합의 과정인데 따라 쓰기, 보고 쓰기, 모사하기, 쓰기 순서로 이루어진다(이영은, 2021). 한편 쓰기 방법은 철자 쓰기와 작문 쓰기가 있는데 고은이 외 2인(2020)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아동은 단어 수준에서의 철자 쓰기가 문장 수준에서보다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철자 쓰기의 핵심인 철자 유형은 음운론적 유형과 형태론적 유형으로 구분되며, 철자 쓰기 발달은 음운 처리 단계, 표기 처리 단계, 형태 처리 단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손글씨를 통해 음운 표기 인식 발달과 형태소 인식 능력의 발달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철자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음운론적 유형의 철자 정확도가 형태론적 유형보다 우선한다는 양적 분석 결과 연구가 있고(양민화, 2014, 정경희, 2020), 유승아(2019)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초기 쓰기 능력 발달의 영향 요인 4가지로 읽기 능력과 철자 능력(전사하기)을 포함하는 인지 요인, 손글씨 쓰기(전사하기)의 행동 요인, 쓰기 태도와 읽기 태도를 보는 정의 요인, 가정과 학교의 문식 환경을 말하는 환경 요인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역시 참고할 만 하다.

쓰기 수행 능력이나 태도에 관련된 연구로서 최나야 외 2인(2018)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 능력이 어머니의 학업 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부정적임을 보였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손글씨 쓰기 유창성과 글쓰기 태도, 쓰기 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 펜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에 대해 손글씨 쓰기 유창성 측정, 글쓰기 태도

검사, 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와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손글씨 쓰기 유창성과 글쓰기 태도, 쓰기 능력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장동민, 2021).

쓰기 학습 부진은 쓰기 장애와는 다른 개념으로 학습자의 내적 요인과 외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학년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알맞은 지도를 통해 부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쓰기 부진 학생은 잠재적인 쓰기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인지, 언어, 정서 등의 내적 요인과 가정환경, 교육 환경 등 외적 요인의 후천적 요인으로 인하여 해당 학년의 성취 수준 정도의 쓰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채연, 2018) 또는 신체적·정신적인 요인이 아닌 학생 내적 원인 혹은 학생 외적 요인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원인이 되어 해당 학년의 평균적인 쓰기 능력 발달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강동훈, 2023)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의 초기 문해력 쓰기 부진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일반 학급에서 신체적·인지적 장애는 없지만 담임 교사의 판단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한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쓰기 수행과정에 오류와 지연이 나타나는 학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쓰기 활동 분석

여러 연구자들이 아동들의 쓰기 능력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쓰기 활동에 있어서 철자의 유형에 따른 오류와 태도, 유창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정렬과 손정은(2012)은 초등학생들의 받아쓰기 활동 중 나타난 철자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이것이 학습자의 언어 인식 능력과 직결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최종윤(2019)은 초등 1학년 학생들의 받아쓰기 오류 중에 받침의 전사 문제 중 하나인, 받침의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자주 발생함을 관찰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철자 쓰기 부진 학생은 철자 표기 인식, 읽기 유창성, 음운 기억에서 부족함을 나타냈으며(박소연과 박현린, 2020), 고학년이 돼서야 자소-음소 일대일 대응 관계 일치와 문법형태소 쓰기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가영, 2018). 또한 철자 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교 연구로써 신가영 외 4인(2015)는 철자 쓰기의 질적 분석을 위해 선행 문헌(Bahr et al., 2012)을 참고하여 오류 분석 기준을 음운 처리 오류, 표기 처리 오류, 음운 표기 또는 처리 오류로 분류하여 수행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철자 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은 철자 수행 수준은 차이가 있으나, 두 집단의 학생에게 나타나는 철자 오류 유형은 비슷하다고 하였다. 한송이와 정경희(2018) 그리고 김희은과 김동일(2021)은 언어 학습 장애를 가지거나 읽기 쓰기 공존 장애 위험군의 초등 저학년 아동의 철자 쓰기 특성 및 오류 유형을 연구하였다. 안부영(2023)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녹음한 자료를 듣고 245

개의 글자를 정확하게 철자로 쓰는 능력을 연구하였는데, 쓰기 능력이 하위인 학생들의 경우 모음 ‘개’와 ‘개’가 들어간 낱말과 ‘ㄱ’받침 낱말에서 특히 오류가 많았다고 분석하였고 서술어나 어려운 모음이 들어 있는 낱말을 정확하게 쓰는 학습이 쓰기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선행 연구들을 쓰기 활동과 쓰기 동기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쓰기 부진 특성 분석 단위

분석 단위	세부 분석 항목		관련 연구
따라 쓰기 (전사)	손글씨 자세	연필 잡는 자세, 쓰는 자세	최경수(2012) 신가영 외 4인(2015) 이채연(2018) 이수진(2018)
	손글씨 형태	자형(글자나 낱말 사이의 간격 포함), 크기	
	손글씨 철자법	정확성, 필순	
	손글씨 실행	속도	
쓰기 동기	쓰기 가치 인식, 쓰기 선호도, 쓰기 노력, 쓰기 환경, 쓰기 신념, 쓰기 지연, 쓰기 효능감		이채연(2018) 고영실,송재홍(2021)

먼저 전사 기능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글씨 자세, 형태, 철자법, 쓰기 실행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했다. 글자 쓰기 영역 중에서 쓰기 학습 부진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 유형은 글자를 쓸 때 눌러쓰는 오류, 띄어쓰기 오류, 글자를 기울여 쓴 오류, 여러 번 고친 흔적의 오류, 불규칙한 글자 크기 오류 순으로 많이 나타나서 쓰기 속도와도 관련성이 높았다는 최경수(2012)의 연구, 초등학생이 손글씨 철자법이 많이 틀리는 경우 글씨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철자법 오류도 많다고 보고하는 신가영 외 4인(2015)의 연구, 기초적 쓰기 시기에 글자 쓰기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정확한 글자의 모양과 크기를 조절하여 쓰는 일이 매우 어렵고 연필 잡는 자세와 자형, 필순을 바르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쓰기 능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의 내적 요인인 쓰기 동기도 쓰기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이수진(2018) 연구, 마지막으로 초등 저학년의 쓰기 준비도가 부족한 경우 선긋기가 바르지 않고 방향 조절이 어렵고, 자-모음자와 글자의 모양이 이상하여 알아보기 어렵고, 글자 크기와 간격 조절이 일정하지 않으며 불균형하게 나타나며, 낱말이나 문장을 쓸 때 복잡하고 비좁게 쓰는 것으로 제시한 이채연(2018)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손글씨 자세 항목에 연필 잡는 자세와 쓰는 자세를 세부 항목으로, 손글씨 형태 항목에는 글자나 낱말의 크기, 자형, 글자 간 간격 등의 모양을 세부 항목으로, 손글씨 철자법 항목에는 정확한 맞춤법이나 필순을 세부 항목으로, 또한 손글씨 실행 항목에는 글씨를 일정한 시간 내에 쓰는 수행 속도를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쓰기 가치 인식, 쓰기 선호도, 쓰기 신념, 쓰기 효능감과 쓰기 지연 등으로 세부 항목을 분류할 때 고려한 연구는 이채연(2018)과 고영실, 송재홍(2021)의 연구인데, 이채연(2018)에서는 쓰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쓰기 동기가 높고 쓰기 지연이 높게 나타날수록 쓰기 동기가 낮다고 하였으며 이는 쓰기 부진 특성 분석 단위로써 쓰기 동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한편 고영실, 송재홍(2021)에서는 쓰기 학습 부진 학생들은 메타 인지 능력과 신념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낮음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현장 교사들이 손글씨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하여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찰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쓰기 활동에 있어서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현장교사들이 바로 판단하고 쉽게 지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수행 태도나 손글씨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가이드로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단점도 갖는다. 따라서 학교 내 학급 내에서 상대적 쓰기 부진을 보이는 아동의 쓰기 활동의 수행적 특성을 분류하여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한 지도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쓰기 활동에 부진을 보이는 아동들이 힘들어하는 받아쓰기를 수행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데, 쓰기 수행 능력을 판단하거나 지도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쓰기 활동은 아니지만 최근에 한정혜 외 2인(2023)은 도형 그림을 따라 그린 초등학생 손그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적 분석을 하여 영재집단, 일반집단, ADHD 의심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일반 학생들은 대체로 그림의 형태를 어느 정도 보존하며 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재 학생들은 그림의 형태를 완전히 보존하면서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던 반면 ADHD 의심 학생들은 주어진 도형을 온전히 복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소리를 듣고 받아쓰는 활동을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아동을 위해 받아쓰기 활동 외에 따라 쓰기 활동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Ⅲ.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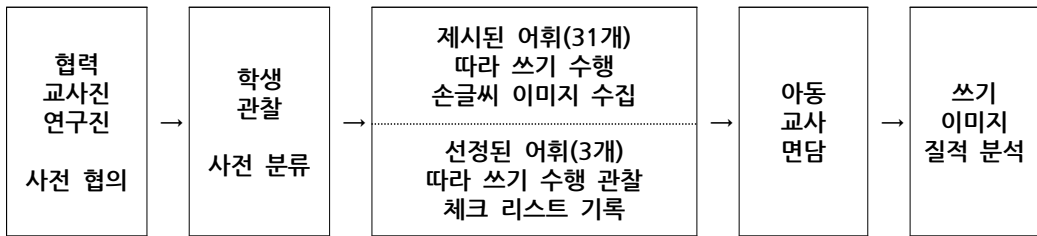
1. 연구 절차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초등학교 1학년 일반 학급의 학생으로서, 신체적·인지적 장애가 없으나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한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글 쓰기 수행 과정에 오류

와 지연이 나타나는 학생을 지도할 때 우선 고려할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절차는 <표 2>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연구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연구의 실행을 위해 초등 1학기 초에 4개의 초등학교 1학년 1개 학급씩 자발적 자원한 교사(경력 8년 이상)를 선정하여 협력 학급을 구성하였다.

<표 2> 연구 절차



그리고 협력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연구 절차, 연구방법에 대해 숙지시키고 학부모와 아동의 실험 관찰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또한 담임으로서 한글 지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6월까지 쓰기 수행 과정을 주 1회 이상 관찰하도록 하였다. 관찰 체크리스트 항목으로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이해와 구분, 철자의 소리를 바르게 읽기, 받침없는 2~3글자의 낱말을 바르게 쓰기, 수업 시간 내에 쓰기 수행 끝내기와 같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수행할 과제와 활동의 완성도와 능숙함에 대한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4개 항목은 도달과 미도달로 체크하며, 4개 항목 모두 도달한 아동은 우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부진그룹의 경우 연구진과 교사들이 모두 협의하여 1개 항목만 도달한 아동은 부진집단으로 최종 분류 기준을 확정하였다.

사전 분류가 이루어진 이후는 31개 어휘에 대해서 따라 쓴 손글씨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이때 어휘 28개는 반 전체 아동이 동시에 따라 쓰도록 하여 손글씨 이미지를 확보했으며, 어휘 3개에 대해서는 아동 개별로 인쇄된 단어를 5초 이내에 따라 쓰기 방법 및 수행 과정을 관찰하며 체크 리스트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개별 따라 쓰기 수행관찰 기록이 끝난 후에는 학생 면담을 하여 녹음과 전사 자료로 변환했다. 또한 쓰기 부진 진단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협력 담임 교사 대상으로 저학년 쓰기 학습 부진 진단 방식과 손글씨 쓰기 수행 과정 관찰 결과에 대한 생각을 인터뷰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따라 쓰기 수행 결과물을 수집하고 지도에 필요한 우선 항목을 도출하고 특징 양상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로는 따라쓰기 어휘군, 따라쓰기 체크 리스트, 인터뷰 질문 문항이다. 먼저 따라 쓸 단어는 <표 3>과 같이 정현선(2022)이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초등 학습자를 위한 국어 교과 적용 어휘 연구에서 선정한 31개의 단어를 검사 도구 단어로 사용하였다.

〈표 3〉 쓰기 단어 선정

구분	학습 도구 어휘	학습 기초 어휘
보통 단어	기분, 들려주기, 소개, 순서, 이야기	그래서, 화제 , 그리고, 글자, 반대말 , 상대방, 일기, 주인공
쌍자음, 겹받침, 이중모음, 연속받침 단어	까닭, 차례, 표현, 낱말, 낭송, 문장, 생각, 장면, 특징	<u>그러니까</u> , 내용, 발표, 설명, 어휘 결국, 받침, 발음, 상상

31개의 단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습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 대상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 도구 어휘 14개와 학습 기초 어휘 17개이다. 쓰기 부진 진단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어휘 분석을 위해 김현숙, 한정혜(2023)는 각 단어를 쌍자음, 겹받침, 이중모음과 연속 받침단어와 그 외 것으로 구분하였다. 개별 체크용으로 사용된 어휘는 협력 교사들과 협의하여 자모음자가 중복되지 않고 글자수가 다른 3개(화제, 반대말, 그러니까)를 선정하였다. 이 3개 어휘는 A4용지 1장당 1단어씩 250포인트, 검정색 고딕체로 인쇄하여 제시된다.

담임교사가 사용하는 체크리스트 도구는 학생들이 5초 이내 A4 용지 1장당 1단어씩 검정색 네임펜으로 자신의 필체대로 따라 쓰는 동안 사용된다. 담임교사는 쓰기 학습 부진 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관찰하여 체크리스트(연필 잡는 자세, 쓰는 자세, 자형, 크기, 철자 정확성, 필순, 속도)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은 사전 협의된 기준(바름, 규칙적임, 시간 내)에 부합하면 도달, 부합하지 못하면 미도달로 체크하였다.

연구 대상 각 학급의 학생들은 쓰기 학습 수준이 고루 편성되어 있는 일반 학급의 학생으로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도 보통의 범주에 들어있는 학교를 선택했고, 협력 교사의 교육경력은 8년 이상인 학급을 선정하였으며, 전체 학생 85명을 대상으로 검사 도구 어휘 따라 쓰기를 실시하였다.

초기 문해력 쓰기 수행의 분류 결과 우수로 진단한 학생 수가 과반에 가까웠고, 쓰기 부진으로 분류되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학급별 2~3명으로 총 10명이었다. 성별은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이었다.

〈표 4〉 연구 대상

학교	교사 경력	참여 학생수	따라 쓰기 분류 진단 평가 결과(예측)		
			우수	보통	부진
A	23년	21	10	8	3
B	10년	15	8	5	2
C	14년	27	14	11	2
D	8년	22	10	9	3
계		85	42	33	10

마지막으로 아동에게는 자기 쓰기 능력, 쓰기 어려운 점, 쓰기 쉬울 때와 어려울 때, 따라쓰기에 대한 소감, 쓰기 싫은 이유 등을 인터뷰했다. 교사에게는 쓰기 성취 수준 진단법, 관찰이나 받아쓰기 할 때 애로사항, 쓰기 수행과정에서 느낀 주요 관찰 양상, 쓰기 어휘의 적정성, 학생들 쓰기 참여 태도나 반응, 쓰기 학습 부진 판단의 애로점, 쓰기 부진 학생의 효과적인 지도법 등에 대한 대면 면담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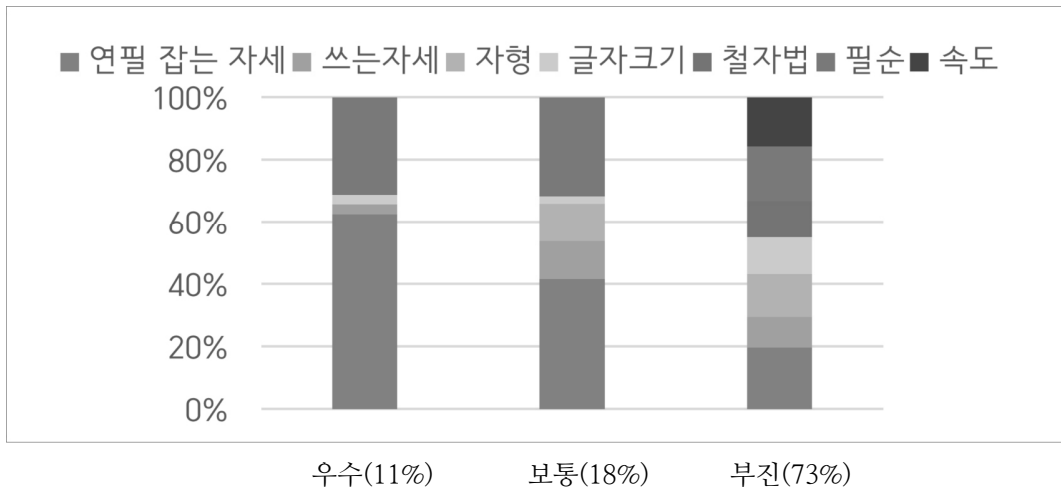
1. 쓰기 수행 과정 관찰

전사 쓰기 학습 수행 과정을 관찰하여, 각 항목 별로 기준 도달 및 미도달한 총 횟수와 비율은 다음 〈표 5〉와 같다. 우측 열을 보면, 따라 쓰기 학습 수행 과정의 세 집단에 대해서 쓰기 우수 학생들은 7가지 항목 중 89%(=262/294) 이상 도달했고, 쓰기 보통 학생들은 82%(=190/231) 이상 도달하였다. 반면, 쓰기 학습 부진 학생들은 27%(=19/70)이하로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기 부진 집단의 따라 쓰기 기준에 미도달한 항목들 비율은 연필잡는 자세가 19.6%, 필순 17.6%, 속도 15.7%로 나타나, 미도달한 학생들의 다수가 연필 잡는 자세와 필순 문제가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집단의 기준에 미도달한 항목으로는 연필 잡는 자세가 47명(37.9%)으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고, 필순이 32명(25.8%)으로 그 다음으로 관찰되어 두 항목으로 63.7%를 차지했다.

〈표 5〉 쓰기 수행 과정 관찰 결과

사전 진단 분류	쓰기 수행 과정 관찰 결과(명)								체크 항목 갯수
	구분	연필 잡는 자세	쓰는 자세	필순	수행 속도	자형	글자 크기	철자법	
쓰기 우수	도달	22	41	32	42	42	41	42	262
	미도달	20	1	10	0	0	1	0	32
쓰기 보통	도달	16	28	20	33	28	32	33	190
	미도달	17	5	13	0	5	1	0	41
쓰기 부진	도달	0	5	1	2	3	4	4	19
	미도달 (%)	10 (19.6)	5 (9.8)	9 (17.6)	8 (15.7)	7 (13.7)	6 (11.8)	6 (11.8)	51 (100)
계	도달	38	74	53	77	73	77	79	471
	미도달 (%)	47 (37.9)	11 (8.9)	32 (25.8)	8 (6.4)	12 (9.6)	8 (6.4)	6 (4.8)	124 (100)

그리고 집단별 미도달 원인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전체 체크 항목의 미도달 비율을 동일하게 놓고 각 항목별 비율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집단별 체크 항목 미도달 비율에 대한 각 항목별 비율

즉, (11% 항목 미도달) 우수 집단과 (18% 항목 미도달) 보통 집단에서는 철자(초록색)와 속도(남색)에 미도달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으며, (73% 항목 미도달) 부진 집단의 항목별 미도달 비율은 연필 잡는 자세(19.6%), 필순(17.6%), 속도(15.7%) 순이지만 나머지 항목들도 13.7%~9.8%의 비율로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쓰기 부진 집단의 쓰는 자세와 자형 항목은 쓰기 보통 집단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2. 쓰기 부진 학생의 쓰기 수행 양상

쓰기 부진 학생이 쓰기 우수 학생 및 쓰기 보통 학생과 비교하여 쓰기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듯 쓰기 수행 과정 관찰 기준의 모든 부분에서 미도달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1]에서 보듯 연필잡는 자세, 쓰는 자세, 필순, 자형, 글자 크기, 속도, 철자법에서 미도달이 고르게 두드러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표 5>의 쓰기 부진 학생의 항목별 도달 비율을 보면, 연필 잡는 자세(0%), 쓰는 자세(50%), 필순(10%), 수행 속도(20%), 자형(30%), 글자 크기(40%), 철자법(40%)으로 나타났다. 즉, 쓰기 우수와 보통 집단은 각각 52%(=22/42), 48%(=16/31)가 연필을 바르게 잡는 반면, 쓰기 부진 집단은 연필 잡는 자세 항목의 경우 올바른 학생은 0%로 10명 중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바르지 않은 연필 잡는 자세는 [그림 2]와 같이 주먹 쥐듯이 잡는 것, 중지까지 모아 잡는 것, 약지까지 모아 잡는 것의 형태로 바르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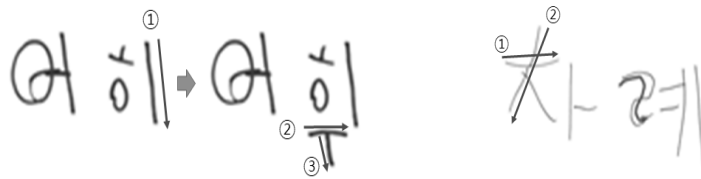
[그림 2] 쓰기 성취 수준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올바르지 않은 연필 잡는 자세

특히 쓰기 우수와 쓰기 보통 그룹 학생들은 연필 잡는 자세나 필순이 바르지 않더라도 보고 바르게 따라 쓰기 수행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쓰기 부진 학생들은 연필을 잡는 것도 어려워하고 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하며 연필 잡는 자세를 고치려다가 바르게 따라 쓰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으므로 연필 잡는 자세의 교정 지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림 1]에서 보듯 연필 잡는 자세와 필순은 쓰기 성취 수준과 상관없이 미도달 학생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순과 연필 잡는 자세를 바르게 익히지 않고 글씨 쓰기를 하면서 습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자면, 초기 문해력 아동의 쓰기 활동 지도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지도항목으로는 철자법보다는 연필 잡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쓰기 부진 아동의 약 10%만이 올바른 필순으로 쓰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그림 3]의 사례와 같이 자음 필순과 모음 필순 모두 바르지 못한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음자와 모음자의 필순이 바르지 못한 것 외에 글씨를 쓰는 방향을 아래에서 위로 쓰거나 오른손잡이임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오류도 많이 나타났다. [그림 3]의 차례 경우처럼 옳지 않은 필순이 오히려 속도가 빠를 수도 있으나, 결국 글자의 자형과 크기 등을 불규칙하게 만들게 된다.



[그림 3] 모음과 자음을 바르지 않게 쓰는 사례

쓰기 우수 학생은 바른 연필 잡는 자세와 바른 필순으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지만, 쓰기 부진 학생은 연필을 불편하게 잡고 힘들어하며 쓰거나 필순을 편한 대로 쓰니 어휘당 5초의 시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와 같이 10명의 쓰기 부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쓰기 양상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한글 해득의 초기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쓰기 지도의 방향을 정할 때 연필 잡는 자세(0%), 필순(10%), 수행 속도(20%), 자형(30%), 글자 크기(40%), 철자법(40%), 쓰는 자세(50%) 순으로 항목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필순은 수행 속도와 자형, 글자 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필 잡는 자세와 필순 중심으로 쓰기 지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필순은 따라 쓰기 연습을 통해 꾸준히 익히는 것이 쓰기 부진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정해진 시간에 짧은 단어나 문장을 따라 쓰도록 지도하는 것이 과제 집중도와 쓰기 능력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 손글씨 자형 분석

교사가 제시한 250pt로 인쇄된 어휘를 A4 용지에 따라 쓰기 시작한 위치는 [그림 4]에서 보듯 집단에 관계 없이 가운데 또는 왼쪽 상단이였다. 그러나 쓰기 우수나 보통 집단의 학생들은 A4 용지에 쓴 31개의 어휘들의 위치와 글자의 크기가 일정하고 반듯한 반면, 쓰기 부진 학생의 경우 시작 위치가 수시로 바뀌며 글자 크기도 일정하지 않은 특성을 보였다.



[그림 4] 쓰기 집단별 손글씨 이미지 사례

특히 쓰기 부진 학생의 손글씨는 다양한 불규칙성을 보여주었다.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듯 기울여 쓰는 방향 불규칙, 글씨의 크기도 큰 것과 작은 것이 섞이는 크기 불규칙, 낱자 사이의 간격 불규칙, 필압 불규칙을 보였으며, 여기에 더해 보고 따라 쓰면서도 철자법이 틀린 어휘도 있어, 여기서도 일종의 불규칙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다른 특징들도 관찰되었는데 이 역시 불규칙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쓰기 부진 학생들의 경우 자형을 관찰해 보았는데, A4 종이 전체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글자만 추출하여 확대 제시된 [그림 5]의 사례들에서 다음의 두 가지 불규칙성특징을 관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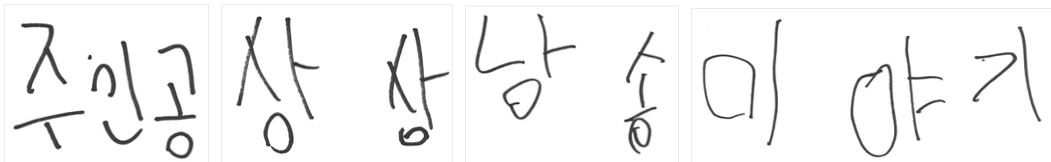
- 이중모음 침범: ‘내용’의 ‘요’가 위 자음을 침범하거나 ‘장면’의 ‘키’와 ‘발표’의 ‘요’, 그리고

‘차례’의 중모음 ‘ㅐ’가 서로 침범하여 빠지도록 쓰기도 하였다.

- 반복되는 ㅅ의 불규칙성: ‘상상’, ‘낭송’과 같이 ‘ㅅ’ 또는 ‘ㅇ’이 모음이 반복되는 경우를 관찰하면 상상의 ‘ㅅ’은 유사하지만 ‘ㅇ’은 불규칙하게 씌여진다. 즉 ‘ㅇ’의 경우 서로 크기도 불규칙하고, 열고 닫힘이 일치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는 원 방향이 서로 다르거나, 시작점과 닫히는 점의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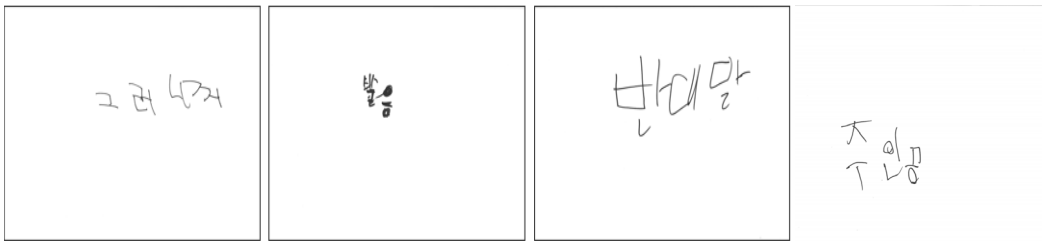
(a) 이중모음 침범 사례



(b) 낱말 내 ㅅ들의 불규칙 모양

[그림 5] 쓰기 부진 집단의 자형 사례

그리고 자형들의 연결을 보면 [그림 6]과 같이 글자 간 간격이 불규칙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겹칠하기과 높은 필압 등이 자주 나타나며, 받침이나 모음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글자 또는 단어 전체가 기울어지면서 쓰거나 작아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된다.



[그림 6] 쓰기 부진 집단의 자형과 글자 크기 사례

따라서 글쓰기 동작에 대한 다양한 요소에서의 일관성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 방법일 수 있다. 체크 리스트 항목에는 없었지만 쓰기 부진 지도에 있어서, 아동에 따라 적정

한 필압 지도와 일관성 있는 ㅇ에 대한 반복 지도, 이중 모음 침범에 대한 지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형과 기울기에 대해서는 네모칸 공책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4. 쓰기 활동에 대한 인터뷰

이 절에서는 쓰기 부진으로 사전 진단한 학생들의 쓰기 동기와 쓰기 효능감에 대한 개별 인터뷰 내용을 기록지로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손글씨에 관한 학생의 인식을 살펴보면 글자 수가 많고 복잡한 어휘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편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쓰기 학습 부진 학생들은 쓰기 동기와 쓰기 효능감이 낮았는데 (<표 6> 참고), 쓰기 동기에서 쓰기 영역에 대한 선호도는 국어과의 다른 영역 읽기, 말하기, 듣기보다 낮았다. 쓰기 학습 부진 학생의 쓰기 효능감은 자신의 쓰기 능력에 비하여 쓰기 효능감을 다소 높게 답하거나 낮게 답하는 등 자신의 수행 능력을 부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쓰기 효능감 인터뷰 사례

<p>담임 교사 : 쓰기를 좋아하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나요? A 학생 : 아니요. 담임 교사 : 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학생 : 많이 쓰는 게 싫고 어려운 글자는 모르겠어요. 손도 아파요. 담임 교사 : 그러면 학생의 쓰기 능력은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생각하나요? A 학생 : 중이요. 담임 교사 : 쓰기를 잘 한다고 생각해요? A 학생 : 네 담임 교사 : 쓰기 능력은 중이라고 했는데 쓰기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A 학생 : 잘 쓰는 글자가 있어서요. 담임 교사 : 어떤 글자를 잘 쓰나요? A 학생 : 쉬운 글자요. 담임 교사 : 어떤 글자가 쉽나요? A 학생 : 음...글자 수가 적은 것...받침 없는 글자요. 담임 교사 : 그럼 잘 못 쓰는 글자는 어떤 것인가요? A 학생 : 잘 모르는 글자... 복잡한 글자요. 담임 교사 : 복잡한 글자는 어떤 글자인가요? A 학생 : 모음이 복잡한 것...자음이 복잡한 것..이요. 받침 많은 글자도 어려워요.</p>

또한 쓰기 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였으며, 모음자와 자음자의 구별도 어려워하며 한글 자소의 이름과 자소의 소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 1학년은 한글의 짜임을 배울 때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여 배우므로 자음과 모음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으나, ‘ㄱ’, ‘ㅋ’, ‘꺠’를 어렵다고 하거나 ‘ㄱ’이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터뷰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모음을 이야기할 때도 자음이나 모음이 어렵다는 표현으로 인터뷰 자료를 정리하였다. 자소 구분 및 이해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 과정에서 모음의 모양이 비슷한 ‘ㅏ’와 ‘ㅑ’와 같은 모음을 혼돈하여 쓰거나 ‘ㅏ’라고 소리 내어 말해주고 글자를 쓰라고 했을 때 다른 모음을 쓰는 것과 같은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면,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으며 쓰도록 하여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고 쓰는 법을 정확하게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글 지도는 반복하여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쓰기 부진 학생 중 부진 정도가 더 심한 아동은 글자 수와 소리 음절 수의 일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아스크림’과 같이 평소 소리 음절 수를 부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 ‘아이스크림’을 듣고 ‘아스크림’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연구 협력 담임 교사 대상 인터뷰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 교사의 쓰기 학습 부진 진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협력 교사진 4명은 초등학교 저학년 쓰기 진단 방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교사의 관찰과 교사 재량에 의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확보된 진단 방식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1학기에는 받아쓰기와 같은 시험의 형태로 진단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 체제(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Written Expression)와 같은 방법은 다소 어려운 방식임을 지적했다. 반면 이 연구에서와 같이 선생님이 제시한 어휘를 보고 따라 쓰기 활동은 학생들이 놀이나 게임과 같이 재미있고 부담감을 적게 느끼는 장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31개의 어휘 수는 좀 많은 양이어서 따라 쓰기 활동 후반부로 갈수록 글자를 성의없게 쓰거나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 인터뷰의 결과를 고려하며 쓰기 부진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단어 위주로 변별도가 있는 중요한 단어를 선별하여 어휘 갯수를 조절하여 진단한다면 진단 시간에 따른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쓰기 자세의 경우 사진을 찍어 아이에게 공유하여 피드백을 주면서 교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V. 결론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쓰기 부진을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단 검사지가 없어 교사의 경험적 판단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웹을 기반으로 하는 진단 도구가 있으나 이 역시 활용이 쉽지 않다. 학생들의 읽기 쓰기 능력이 부족하고 컴퓨터 기반 기기 조작 능력도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며,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교사가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말까지는 받아쓰기와 같은 시험 형태의 진단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쓰기 능력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많다. 쓰기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초기 쓰기 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철자 능력과 손글씨 쓰기(전사하기) 및 쓰기 태도와 문식 환경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문자 이해와 쓰기의 입문 과정으로 연필 잡기, 필순, 자형, 철자법, 속도 등 단어를 쓰기를 하기 위한 행동과 보고 바르게 따라 쓰는 인지적 과정, 쓰기에 자신감을 갖는 쓰기 동기 및 효능감을 쓰기 성취 수준 판단의 근거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쓰기 지도를 위한 가이드 요소들을 찾아보고자 연구를 구성하였으며, 교직 경력 8년 이상의 1학년 담임 교사 4명을 협력 교사로 정하였고 협력 교사는 연구를 위한 사전 협의, 연구 과정에 대한 안내, 쓰기 수행 과정 관찰 실행, 손글씨 자료 수집,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교사의 면담까지 연구의 전반에 함께 참여하였다. 인지적·신체적 장애가 없는 학생들로 구성된 4개 초등학교 1학년 일반학급 학생 85명을 대상으로 학급별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속해 있는 점을 감안하고 교과 학습 이해에 중점을 둔 단어에 한정하여 검사 도구 어휘를 정하였다. 교사가 제시한 인쇄 단어를 제시하면, 아동은 검정색 네임펜으로 A4용지 1쪽당 1개씩 따라 쓰게 하여 손글씨를 수집하였다. 이때 손글씨를 쓰는 수행 과정을 연필 잡는 자세, 몸의 자세, 필순, 속도, 자형, 글자 크기, 철자법 항목으로 나누어 성취 도달과 미도달로 체크를 하여 분류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초기 문해력 쓰기 지도를 위해, 보고 따라 쓰기 손글씨 수행 결과에 대한 체크 리스트 항목과 손글씨에 대한 양상 분석, 그리고 인터뷰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지도법을 탐색하였다.

쓰기 부진 학생은 쓰기 우수 학생 및 쓰기 보통 학생과 비교하여 쓰기 수행 과정 관찰 기준의 모든 부분에서 불규칙성으로 특징화되는 미도달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필 잡는 자세와 필순이 가장 두드러진 미도달 항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쓰기 부진의 문제 해결에는 연필 잡는 자세, 필순을 교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쓰기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꾸준한 연필잡는 자세와 필순 지도를 통한 교정이 된 이후, 자형, 글자 크기, 철자법 항목 순으로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자형과 글자 크기를 지도할 때는

줄 공책보다는 칸 공책을 활용하고, 철자법에 앞서 일정한 ‘ㅇ’의 연습과 모음이 자음을 침범하지 않는 연습을 따라 쓰기 형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필압지도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쓰기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규칙성을 줄이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받아쓰기 형식보다는 시간 제한을 주고 게임식으로 따라 쓰기 하는 방법이 학생들이 놀이와 게임처럼 즐겁게 느끼면서도 쓰기 수행 과정 관찰과 손글씨 결과물을 병행하여 살펴볼 수 있어서 학생의 쓰기 학습 수준에 대한 밀도있는 판단이 가능하였다. 특히 쓰기 지도를 게임식으로 운영할 경우 속도뿐만 아니라 필순과 철자의 바름을 우선으로 하는 조건을 붙여 경쟁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학생 수가 많을 경우 모둠별로 또는 짝을 이뤄 관찰 체크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초기 문해력 쓰기 활동의 분석을 통해 쓰기 부진의 판단과 지도에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였고, 따라 쓰기에 대한 편리함과 관련 지도법을 제안하였다. 향후 31개 어휘군의 선별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교과서와 활동지에 자형 보정 활동을 위한 정사각형 글자 칸을 가진 활동지의 제공 및 한글의 정확한 발음 연습과 글자 쓰기를 연계한 지도 방안을 제안한다.

※ 논문 투고일: 2024. 6. 19. ※ 논문 수정일: 2024. 8. 16. ※ 게재 확정일: 2024. 8. 30.

〈참고문헌〉

- 강동훈(2023). 기초 문식성 함양을 위한 한글 책임 교육 정책의 성과와 지향점. **한국 초등국어교육, 76**, 278-303.
- 고영실, 송재홍(2021). 쓰기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쓰기 수행과 신념 및 삶의 질 비 교. **학습장애연구, 18**(3), 99-125.
- 고은이, 신명선, 김미배(2020). 초등 저학년 아동의 언어학적 단위(단어/문장)에 따른 철자 쓰기 발달 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5**(2), 266-278.
- 김수정(2021). 읽기와 쓰기를 통한 초기 문해력 지도-기초학력전담교사의 지도사례 중심으로. **초등국어과교육, 28**, 41-59.
- 김정렬, 손정은(2012). 초등학생들의 받아쓰기 활동에 나타난 철자 오류 분석. **영어교과교육, 11**(1), 141-162.
- 김현숙(2023). **초등 저학년 쓰기 학습 부진 판별을 위한 AI 프로그램 개발**.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현숙, 한정혜(2023) 초등학교 쓰기 학습 부진 판별을 위한 AI 프로그램 개발. 한국정보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43-246.
- 김희은, 김동일. (2021). 저학년 읽기-쓰기 공존 장애 위험군의 철자오류 유형. **특수 아동교육연구, 23**(2), 137-163.
- 박소연, 박현린(2020). 초등학교 저학년의 쓰기 능력 발달 및 쓰기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 연구. **언어치료연구, 29**(3), 45-56.
- 신가영(2018). **철자 쓰기 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철자 쓰기 발달 특성**. 한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신가영, 설아영, 조혜숙, 남기춘, 배소영(2015). 초등학생의 철자 발달과 오류 패턴 분석. **언어치료연구, 24**(2), 61-72.
- 심영택, 김정은, 백지아, 박도현, 박지희(2023). 초기 문해력 개별화 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교와 수업연구, 8**(2), 23-60.
- 안부영(2023). 초등학생의 철자 쓰기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39**(4), 137-155.
- 양민화 (2014). 음운론적 유형과 형태론적 유형의 초기 철자 발달. **Communication Science and Disorders, 19**(1), 120-131.
- 유승아(2019).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쓰기 능력 발달에 관한 단기 종단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경남(2021). 기초학력으로서 문해력의 범주와 수준 탐색, **새국어교육, 126**, 91-113.
- 이수진(2018). 기초적 쓰기 부진 진단과 중재 방안. **청람어문교육, 65**, 153-183.
- 이영은(2021). **형태소 인식 기반 쓰기 중재 프로그램이 학령기 쓰기 부진 아동의 철자 쓰기에 미치는 효과**. 용인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채연(2018). **초등학교 쓰기 부진 학생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다은, 이경화(2022). 쓰기 부진아의 특성에 따른 지도 방안, **초등교과교육연구, 36**, 75-89.
- 장동민(2021). 초등학생의 손글씨 쓰기 유창성과 쓰기 능력, 쓰기 태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72**, 207-227.

- 정경희(2020), 초등 3학년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의 형태소 인식능력,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5(2), 258-265.
- 정현선(2022). **KSL 초등 학습자를 위한 국어 교과 적용 어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수(2012). **쓰기 부진 학생과 일반 학생의 쓰기 특성 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민선, 신나민. (2014). 중학생의 필기에 대한 인식, 실태 및 필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416-428.
- 최종윤(2019).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받아쓰기 오류 고찰 - 받침의 전사(transcription) 문제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69), 433-459.
- 최나야, 전은옥, 송재명(201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 쓰기 지도의 균집 예측 가능성. **인간발달연구**, 25(2), 223-247.
- 한정혜, 이시훈, 박영희(2023). 레이-복합도형검사 기반 아동 학습 집중도 성향 인공지능 분류. **학교와 수업연구**, 8(2), 195-214.
- 한송이, 정경희(2018). 초등 저학년 언어 학습 장애 아동의 철자 쓰기 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3(2), 313-326.
- Skar, G. B. (2021). Handwriting fluency and the quality of primary grade students' writing. *Reading and Writing*, 34, 1159-1181. <https://doi.org/10.1007/s11145-021-10185-y>
- Stanovich, K.E. (1986). Matthew Effects in Reading: Some Conseq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cquisition of Litera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1(4), 360-407.

〈Abstract〉

An Analysis of Coping Activities in Children with Early Literacy Writing Difficulties

Han, Jeonghye¹, Kim, Hyunsuk²

In the early stages of literacy, teachers often rely on assessments such as dictation, and instruction focused on spelling based on empirical judgments is commonly implemented. This study explores methods that teachers can use to identify early literacy writing difficulties through the observation of handwriting style and form, and to address these issues effectively. Initially,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categorized into groups of excellent, average, and poor writers based on pre-established observational evaluation criteria. The students then performed copy work with provided test vocabulary, which was analyzed to identify patterns in their performance. Handwritten samples were collected for further analysis. The observation criteria for each pre-evaluation group included pencil grip, writing posture, character form, letter size, stroke order, spelling, and writing speed. The study found that the most critical factors to address from the start of the semester to prevent writing difficulties were attention to pencil grip and stroke order. Students with poor writing skills exhibited deficiencies in letter formation, font size, spelling, and writing speed. Analysis of the handwriting samples revealed that students with writing difficulties often had issues with vowels encroaching on consonants and irregular repetitions of the consonant “ㅇ.” Effective methods for diagnosing early literacy writing problems were derived through interviews with students and teachers, and corresponding guidance was proposed.

Keywords : Early Literacy, Dictation, Writing Difficulties, Handwriting, Copy work

1.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anjh@cje.ac.kr (Lead Author)

2. Teacher, Gapyeong Elementary School, puri625@korea.kr (Co-Author)